

한국 체육의 길을 묻다 10 '인프라 전도사' 야구 해설가 허구연

“히어로즈 선수들이 왜 구단 잘못 만나 기죽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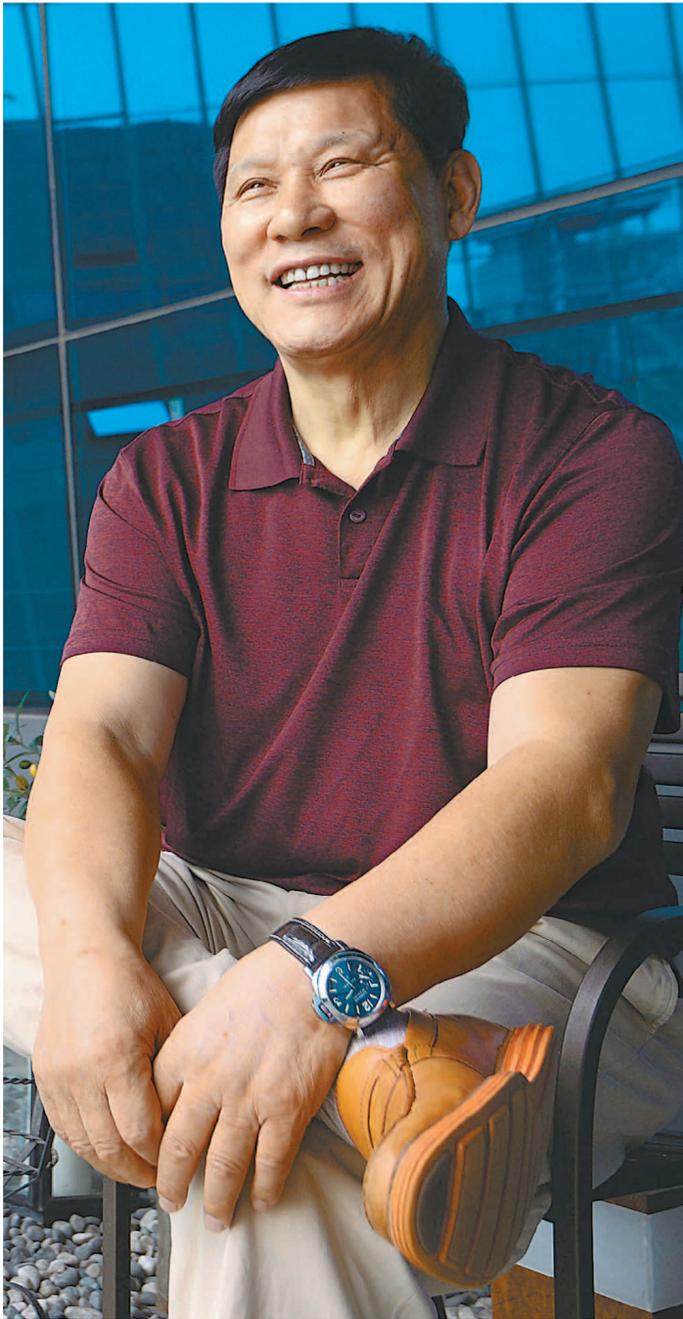
허구연 MBC 야구 해설위원(67)은 '인프라 전도사'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해설가로서 '선한 영향력'을 야구장 인프라 혁신에 활용했다. 영역을 확장해 캄보디아와 베트남까지 야구장을 만들었다. '야구로 번 돈, 야구를 위해 쓴다'는 생각을 행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런 허위원이 이제 '소프트 인프라의 개선'을 외치고 있다. "하루 아침에 안 되더라도 KBO리그의 문화를 바꾸자"는 제안이다. 클린 베이스볼이 위협받고 있는 세대에 정의와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야구계에 불어넣을 수 있을 허위원의 방편은 무엇일까.



왜 야구 하다가 안 되면 나오자 되나 스포츠 후진성 '소프트 인프라' 문제 KBO 구단 합의제전 아무 것도 안 돼 이해관계 상충 땀 새 총재도 힘 못 써 대전구장 발언? 시간 없어서 강하게 선거 끝나면 또 4년 기다려야 하나



● '클린 스포츠'는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관리해야
-최근 야구가 아프다.
"새 야구단, 새 야구장을 계속 확장하는 시절이 있었다. 덕분에 파이가 커졌다. 그러나 호황에 취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야구계가 착각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선배들의 희생정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의무감, 절제된 자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KBO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답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어릴 때부터 제도로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소양교육을 시켜야 한다. KBO 외에 대한야구협회,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까지 나서야 한다. 10년 후를 보고 중장기적인 목표로 잡아야 한다. 당분간은 (선수 개개인의) 같은 일탈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야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체육계 전반의 과제다."
-선수 개개인의 일탈이기도 하겠지만 문화의 문제일 수 있다. 선배 세대에 이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야구계에 '어른'이 없는 탓도 있다.
"선수들이 왜 사는가? 왜 야구를 하는가? 야구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이런 고민들이 없다. 기능 위주로 매달 따고 챔피언 되는 데만 목적이 있다. 안타깝다. 몇 명의 극소수 스타들을 위해 90% 이상의 선수가 희생해야 하는가? 아이들은 모른다. 어른들이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주말리그만으로 될 상황이 아니다. 챔피언, 돈 이것만 좇으면 우리 스포츠는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물림하면 안 된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하다가 안 되면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가족이나 피지컬에서 밀리고, 저변이 협소한 데 엘리트 체육 정책을 포기하면 국제 경쟁력의 저하는 어찌하나?
"맞는 말이다. 그러나 1%를 위해 99%가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학은 학업을 병행하며 운동한다. 세계적 선수가 나올 확률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두는 것은 아니다. 일선 지도자 개개인 차원의 일이 아니다.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예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어릴 때는 운동만 하고 싶다. 누가 수업하고 싶겠나? 애들은 모른다. 어른이 해주어야 한다. 지금 제도는 아이들이 가진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잔인하다."
-야구선수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민수, 양준혁, 박찬호, 강민호, 양현종 등의 기부는 회화적이다. 더 많아져야 한다. 그렇게 좋은 뉴스를 선배들이 만들면, 후배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안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인프라 전도사' MBC 허구연 해설위원은 국내외 곳곳에 야구장을 만들고 있다. '야구로 번 돈은 야구를 위해 써야한다'는 철학 때문이다. '야구당, 체육당'을 자처하는 허위원은 야구장 설립을 위해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과 꾸준히 격론한다. 허위원이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 중 한 문장을 웃고 있다. 김충원 기자 won@donga.com

(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때가 '정학'이라면 이제는 '퇴학'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히어로즈 선수들이 왜 구단 잘못 만나서 같은 운동하는데 기죽어야 하나? KBO 사무국이 규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리그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되나. 메이저리그 피트 로즈의 승부조작 사건 이상으로 바라 봐야 한다."
-너무 엄격히 접근하다가 판이 깨질 수도 있다. "설령 9구단 체제로 가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각오로 임해야 한다."
-히어로즈 뒷거래 트레이드의 거래 상대였던 나머지 구단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클린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제재를 가해야 한다. KBO의 힘이 약해져서 구단 위주로 가다보니깐 끌고 가지를 못한다. 합의제에서 구단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아무 것도 안 된다. 어느 분이 총재를 해도 어렵다. 구단과 등을 지더라도 밀어붙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밖에서는 (새 총재에게) 기대를 거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정운찬 총재가 힘들 것이다."
-야구의 산업화, 통합 마케팅만 봐도 구호에 비해 추진력이 약하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아마 정 총재도 와서 놀랐을 것이다. 통합 플랫폼 이야기는 9년 전부터 나왔다. 그러나 선행투자를 해 놓은 빅마켓 팀들이 따라올 일이 없다. 그러면 따라 오도록 해야지, 기다리면 답 없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다 맞추려면 언제 일이 되겠나?"
-'하드 인프라'에 관해 대전구장 발언이 화제였다. "지자체 설득을 위해 3년 간 15만km를 뛰었다. 대전시처럼 소극적이고 무반응인 곳은 처음 봤다. 선거 끝나면 4년을 또 기다려야 하나. 반드시 (후보들이 야구장 개선을) 공약에 넣도록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강하게 얘기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구장 안 지어주면 연고지 옮기는 구단이 하나는 나왔으면 하는 생각마저 든다."
-허위원이 정치인, 단체장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겠다. "나는 야구당이고, 체육당이다. (웃음) 내가 얼굴 알려졌으니 발품 팔아야지."

● KBO, 성과 내고 싶다면 원칙과 추진력부터
-넥센 히어로즈 문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걸려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KBO가 구본능 전임 총재 때,

김영진 기자 gatzby@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 대할인 행사
"저접음 회로 설계로 잡음이 적으며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대할인 행사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선물!!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건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작동, 급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 사용
청력에 맞추어 10단계 음향조절기능
이어폰 연결하면 양쪽 귀로 사용 가능(기본제공)

이럴 때 사용하세요
기족, 친구와의 대화시 큰소리가 필요할 때
TV 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을 때
상당시 상대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을 때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를 크게 듣고 싶을 때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중고형식이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이런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체험 후 구입하신분/ 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일이 경과하신분

서울사당지사: 02-522-2710
무로체험 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무로상담전화: 1644-2464 **입금계좌: 351-1015-0904-23 씬모아**

HAIR GUARD 헤어가드
헤어가드는 식약처가 허가한 "개인용 발모 의료기기"입니다!
헤어가드 발모원리
저출력레이저의 특정한 파장이 두피에 닿으면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모낭과 연결된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된다. 혈류량의 증가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발모를 유발시켰던 호르몬 노폐물들이 혈류를 통해 모낭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모근은 혈액내에 녹아있는 산소와 영양성분을 잘 받아들여지게 되어 발모로 이어진다. 단 미세한 습열이라도 살아있어야 효과가 볼 수 있다.

임상시험실시기관
한양대병원 88.5%
한림대병원 83.3%
발모효과 입증! (3개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GMP, CE 유럽인증/ 미국, 독일, 중국 등 해외로 수출
헤어가드 400억 매출 돌파!
다들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구입문의: 1661-1224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입금계좌: 351-1015-0904-23 씬모아
서울사당지사: 02-522-2710 **찾아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SAFA 비디오 라디오 음악 노래방 녹음
대한민국 전문업체

휴대용 동영상이 노래방을 내손 안에!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SAFA

▶ 충전식 휴대용 SAFA 7인치 화면 액정 장착
▶ 언제 어디서나 노래방 음원 재생 (마이크만 연결하면 그곳이 바로 노래방)
▶ 언제 어디서나 HD급 비디오, 영화, 동영상 감상
▶ 라디오 기능으로 재방송에도 라디오 청취
▶ 녹음기능, USB 메모리 사용가능
▶ 등산, 낚시, 여행갈 때 이외 필수품

2018년 신제품
▶ 전국노래방 55곡 음원 선착순 무료증정!
▶ 추첨의 당첨 1,000명!
▶ 행사기간중 50분 한정 마이크, AC 충전기, USB 스틱 증정

이민지, 남진에서 박현민, 장윤정까지 1100곡 수록!
▶ 노래방 음원 발매! ▶ 도전! 110곡 7080 노래방 SD카드

▶ 이면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택배로 받으신 분은 3일이 경과하신 분 / 제품보호용 필름을 제거하신 분

신물용으로 최고!
서울사당지사: 02-522-2710
무로체험 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구입문의: 1644-2464 **입금계좌: 351-1015-0904-23 씬모아**